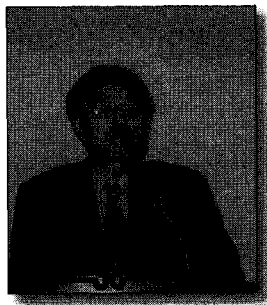


양육산업 발전 방안



배 소 식
〈분회 부회장〉

한국양육산업은 발전 가능성이 가장 높은 농축산업중의 하나임이 분명하다. 그러나 산업 구성원들의 뚜렷한 목표선정과 부단한 노력이 뒷받침되어야 한다.

1. 양육산업의 목표

양육업을 농촌의 주요 소득산업으로 성장시킨다는 목표를 가져야 할 것이다. 또 양육산물은 고품질 한약재 및 고단백 육류공급원으로서 국민건강과 식량자급에 기여토록 한다는 목표를 세워야 한다.

이를 통해 연간 1조원 이상의 외화소비를 억제함으로써 국가경제 발전에도 기여하는 외화대체산업을 성장시켜야 할 것이다.

2. 당면과제

가. 전업화

양육업을 사육에서 수확, 홍보, 판매에 이르기까지 농장주가 직접 나서야 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물론 발전을 이루어감에 따라 이들 단계가 분리되어 전문화되겠지만 현재로서는 전업농가만이 올바른 양육업을 영위하고 소기의 수익을 창출할 수 있다.

특히 그동안 소외됐던 정책적 지원이 활발히 이루어진다면 전업 양육농가를 우선 대상으로 선택할 것임은 당연하다. 또 양육업 장기발전 대책등을 수립함에 있어서도 전업농가를 기준으로 삼게 될 것임을 예상할 수 있다.

나. 규모화

규모화는 가장 시급히 개선해야 할 과제이다. 현재 우린 농가당 사슴사육두수는 평균 15두 정도로 매우 비효율적인 구조를 가지고 있다. 이러한 상태로는 농장경영계획 수립, 생산비 절감, 혈통 개량, 생산물 홍보 및 판매 등 합리적 경영을 이루기 위한 모든 과정을 제대로 진행할 수 없다. 우리나라와 경쟁해야 할 뉴질랜드의 경우 3천5백 농가에서 1백70만두를 사육하고 있어 농가당 평균 사육두수가 4백85두에 이른다는 점을 참고할 필요가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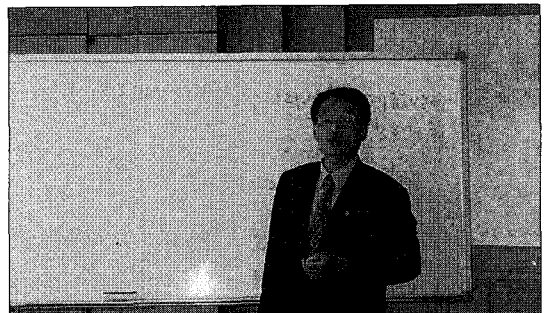
또 양육산물 시장의 제한없는 경쟁시대가 도래하게 되면 국산 양육산물 가격도 필연적으로 낮아질 수밖에 없고 따라서 두당 소득도 줄어들 것임을 예상하지 않을 수 없다. 이를 보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규모화가 필요한 것이다.

다. 차별화

차별화는 본격적인 국제경쟁 무대에 뛰어들게 된 한국 양육업이 택해야 하는 유일한 생존수단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넓은 국토와 사계절 푸른 조사를 섭취할 수 있는 뉴질랜드 등과의 가격경쟁은 무모할 수밖에 없다. 물론 우리 나름대로 산림내 사육이나 부존사료 활용 등으로 생산비를 절감하는 노력을 게을리 하지는 말아야 하겠지만 궁극적으로는 사육환경 및 사료를 활용

한 품질차별화에 최대의 승부수를 두어야 한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차별화 방안은 생산단계, 수확단계, 상품화 단계로 나누어 검토할 수 있다. 생산단계에서의 차별화는 산림내 방목사육, 약초 및 약용관목류 재배 이용, 산야초 및 자연산 수목류 등 육림부산물 사료 이용 등을 꼽을 수 있다. 수확단계에서는 적기절각, 상품성 제고를 고려한 관리(위생측면)를 들 수 있고, 상품화 단계에서는 생육용 및 동결진공건조로 차별화를 이루되 품질보증제 등을 도입하여 소비자들로부터 품질우위를 인정받을 수 있는 장치를 운용해야 할 것이다.



▲ 농협 안성교육원에서 강의를 진행하는 본회 배소식부회장

라. 혈통개량

국내에서 사육중인 엘크, 꽃사슴 모두 육용생산 능력이 외국산에 뒤떨어지는 것이 사실이다. 북미지역 엘크의 경우 두당 평균 12kg 정도의 육용생산능력을 갖추고 있으나 우리나라는 8~9kg 정도 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특히 지난해 북

미 녹용대회에서는 73일에 절각한 6세 짜리 엘크가 22kg이 넘는 녹용생산 기록을 세우기도 했다.

꽃사슴도 중국의 평균 3~5kg에 비해 우리나라는 1kg 내외로 녹용생산능력이 크게 뒤떨어진다. 따라서 체계적인 선발 및 검정, 인공수정 및 수정란이식 기술 활용 등으로 혈통개량을 추진해야 한다.

한편, 사슴은 아직 축산법상 개량대상 가축에 등재되지 않고 있어 이의 개정으로 개량추진 기반을 마련하는 것도 시급한 과제이다.

마. 사육기술

사슴사육 기술은 재래적으로 발전하여 왔기 때문에 국내 현실을 감안한 체계적 정립이 시급하다. 이와관련 최근 농협중앙회가 '사슴사육기술 표준'에 대한 연구용역을 추진하고 있음은 다행한 일이다.

사육기술은 녹용생산 및 녹육생산으로 이원화하여 체계화되어야 한다. 특히 녹용생산을 위한 사육기술에 있어서는 품질고급화 및 차별화 프로그램을 중점 연구하여 농가에서 곧바로 적용할 수 있도록 뒷받침되어야 할 것이다. 녹육생산용 사슴사육 기술 개발에 있어서도 육질 및 생산성을 고려한 단기비육 프로그램이 만들어져야 한다.

한편, 농가들은 우선 많은 종류의 조사료, 약초류 채취 및 재배, 임간방목 등

외국과 차별화된 사육방식을 적극 도입할 필요가 있다.

바. 홍보 및 판매

국산 양록산물의 우수성을 홍보하기 위해서는 이를 입증할 수 있는 기초연구에 많은 투자가 이루어져야 한다. 또 양록자조금제도를 도입, 지속적인 홍보 활동을 펴고 최대 녹용소비처인 한의업계와의 접촉을 확대하는 기회를 가져야 한다.

녹용판매는 소비자 직거래 및 한약재 규격품 판매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 많은 소비자를 농장으로 유치하려면 농가 단위의 각종 이벤트 실시, 청결한 농장 위생 등이 선행되어야 하며 지역별 공동 직판장 설치, 직거래 시장 및 홈쇼핑 판매 등을 통해 소비자와의 직거래를 확대해야 한다.

한약재 규격품화는 현재 한국양록협회에서 추진중인 동결건조녹용 규격품(국선용) 생산 및 한의업계 공급사업이 원활히 추진되어야 한다.

사. 양록산물 가공

녹용은 앞으로 한방 및 건강보조식품으로 양분되어 이용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이미 외국에서는 녹용을 이용한 건강보조식품 개발이 활기를 보이고 있는 실정이므로 우리나라 소비자의 기호도를 고려한 가공제품 개발을 서둘러

야 한다.

이와관련 한국양록축협이 그동안 사슴 액기스, 녹용대보원, 삼록차, 룯고 등 가공제품을 개발하는 한편, 일부 업체에서 녹용분말 캡셀을 의약품으로 제조 판매하고, 녹육 통조림을 개발하는 등 산발적인 진전이 있었다. 앞으로는 이러한 가공제품 개발 및 유통체계를 주도적으로 이끌 수 있는 생산자 단체의 역할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

아. 정책 및 제도

사슴은 가축이면서도 각종 정책수혜 대상에서 소외되어 왔다. 최근들어 법정 가축전염병 살처분 보상금 지급대상에 포함시키는 등 변화는 있으나, 여타축종에 비해 정책지원이 크게 부족하다.

정책측면에 있어 양록산업 현황에 대한 구체적인 현황조사, 외국 양록업 실태 조사, 양록산물 시장 전망 및 산업가치 측정 등 기초적인 작업이 선행되어야 한다. 또 양록산업 장기발전 대책을 수립해 농가들이 안정적이고 미래지향적인 양록경영을 영위토록 뒷받침하여야 한다.

양록관련 제도는 아직 양록업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채 적용되는 사례가 있어 농가경영을 더욱 어렵게 하고 있다. 축산폐수 처리시설 설치를 위한 축사면적 산정에 있어서도 사슴사육 현실을 고려치 않은 채 축사와 운동장을 구

분하여 시설토록 하고 있으며, 사슴 자가도축도 농가현실을 무시한 채 2003년부터 자가도축을 할 수 없게 되어 있는 축산물가공처리법 시행을 강행할 움직임 보이고 있다.

자. 생산자 단체의 기능 강화

국내 양록생산자 단체는 한국양록협회와 양록축협으로 구분할 수 있다. 협회는 대정부 활동을 통한 정책개발, 제도개선, 농가권익보호 등의 역할을, 조합은 생산물 구매 및 판매, 가공사업 추진 등 역할을 하도록 구분돼 있다. 이러한 각 단체의 고유기능을 충분히 감안하여 각기 사업을 활성화하고 단체간 유기적 협조체제를 갖추도록 유도해야 할 것이다.

한국양록협회는 지난해 절편녹용 조기수입 반대 대규모 결의대회 성공개최를 계기로 품질보증제 실시, 수입녹용 감시단 운영, 자조금제도 도입 추진, 수입녹용 감시 강화 및 검사업무 추진 등 다양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 또 기존 경제사업 단체의 부실로 말미암아 부득이 사업기구를 산하에 설립해 생산물 구매 및 가공판매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상황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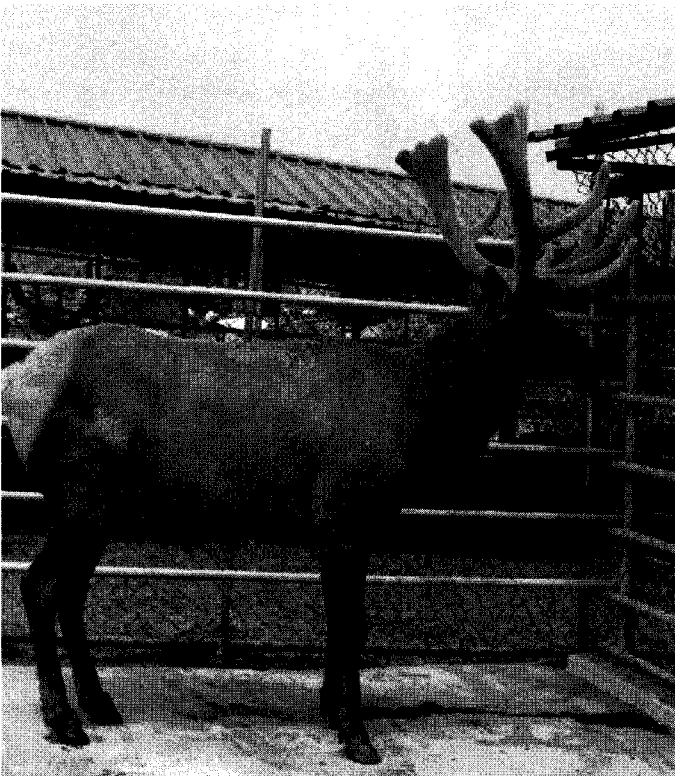
무엇보다도 생산자 단체의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농가의 자발적인 참여가 우선되어야 할 것이다. 이는 곧 모든 양록농가가 주인의식을 가져야 한다는

뜻이다. 특히 앞으로 시행될 자조금사업 등에 있어 추진주체인 협회를 중심으로 단결하지 않으면 국제경쟁에서 유리한 고지를 선점하지 못할 것이 자명하다.

3. 종합대책

가. 양육육성 의지

양육인 스스로 양육산업 가능성에 대한 확신을 갖는 것이 무엇보다 필요하며, 산업육성 의지를 공고히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나. 장기계획 수립

정부와 업계, 학계, 연구기관 등이 공동 참여하여 양육산업 장기발전 계획을 수립함으로써 농가 안정경영 기반을 마련해 주어야 한다.

다. 양육산업 인식 개선

지속적인 대정부, 대국민 활동을 벌여 양육산업의 중요성과 육성 필요성을 인정받는 것이 필요하다.

라. 양육인의 과제

양육인 스스로 산업육성 역량을 과시할 수 있도록 자조금사업을 반드시 성공적으로 운영해야 하며, 이를 통해 강력한 생산자 단체를 육성해야 한다. 각종 연구비, 홍보비 등도 자조금 사업을 통해 스스로 조달하며 지역별 브랜드화 사업을 적극 추진해야 한다. 여기에는 지방 자치단체와의 협력체계 강화도 반드시 필요하다.

양육산업 장기발전 계획에 맞추어 농장경영 합리화 방안을 수립하고 시장경쟁 체제에 대비한 생산성 향상, 품질고급화, 생산비 절감, 시장개척 등에 모든 역량을 결집시켜야 한다.

한국양육